

## 132. 험담, 판단 그리고 중상을 조심해라. 거룩함은 너희들의 방어야.

2015.09.1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서로의 임재가 얼마나 달콤한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너무 드물고, 나는 너의 하루를 우리의 친밀한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해. 너가 나에게서 그것을 필요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서 이것을 필요로해. 나는 너의 생각들이 보여.

클레어, 나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이야. 신음하는 나의 창조물에서 느끼는 나의 지침은 잠시라도 세상을 정지시키고 내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즐거운 존재, 감사하는 존재로 균형잡을 필요가 있어. 그것이 나에게 전부야. 무엇보다도 나를 찾는 신부를 나는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이 신부는 이기적인 동기나 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나의 마음에 너무 동조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서로의 마음으로 함께 안식할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해라.

(클레어) 오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요청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야. 클레어, 개인적인 거룩함을 나에게 더 요청해라.

(클레어) 주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지만 저는 제 육체에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해요. 하지만 제가 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전 성자들의 희생들을 모방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제발 저에게 보여 주세요.

(예수님) 창조되거나 창조되지 않은 모든 것들보다 나의 뜻을 원하는 것. 너는 그것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아.

(클레어) 네, 심지어 지금도 저항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련의 시간에 관한 것이야. 너의 가난한 마음이 부드러운 젤리로 변해가는 이 시기에 나도 너의 뜻을 붙잡았어. 폭력으로 너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마음을 나에게 넘기고자하는 만큼 너에게서 받는 거야.

클레어, 이 세상의 모든 안락함은 정말 거짓이야. 너는 가지고 싶었거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고, 그 때를 돌아보면서 너의 어리석음에 당황하게 될 거야. 사탄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낚시바늘을 설치해놨어. 사탄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마치 흑표범처럼 은밀하게 그들을 스토킹해. 사탄은 그들을 낚아채기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선물들과 내가 그들의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것을 버리기 때문이야.

친구의 상처와 무관심은 그 마음 속에 깊이 찔렸고 내가 선택한 명예의 그릇들은 누구보다 나를, 심지어 악마 자신까지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영혼들의 주변보다 나에게 일생을 바치는 영혼들의 주변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는 이유야. 적들은 나의 악기들 중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을 큰 승리로 생각해. 이것은 어둠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보통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해.

예를 들어, 만약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면, 너는 방금 문을 열었고 악마는 그 문을 더 많이 열려고 발을 넣어. 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염이 포함된 대화 이후에 그것을 들은 그릇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을 들어. 그것은 그 그릇의 죄를 두배로 만들고 문을 조금더 넓게 열게되. 악은 악을 낳아. 머지않아 그 그릇은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하게 되. 그 그릇은 순간 어떠한 불결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주 거의 대부분이 이 시점에서 멈춰. 그 그릇은 내 영이 슬퍼하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근원에 도달할때까지 돌아가.

오 클레어, 너는 반드시 더 조심해야되. 제발,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방을 중단해라. “그것때문에 마음이 아프니 회개하자”라고 말해라.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냥 그곳에서 떠나고 내 손에 맡겨라. 너도 알다시피 비방은 너가 비판하는 사람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겨. 그 상처에서 신랄함의 감염은 쉽게 몸 전체에 퍼지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유일한 치료법은 고백과 회개 그리고 치유받기위해 나에게 오는 거야. 하지만 종종 이 영혼들은 그 상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은 은밀히 침투하여 깊숙히 감염시켜.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 고통은 심할 것이고, 너가 느끼고 있던 그 쓰라림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될 거야.

다른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해. 나는 여러 번 너의 마음에서 그 화살들을 제거할 것이지만 그것은 흔적을 남기고, 너가 통제할 수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될때까지 매우 민감해지게 되어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버튼(누를 수 있는)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작은 사건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기 쉬운 부드러운 표적이 되어서.

사탄의 이러한 행동들의 목적이 뭐냐고?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 나와 나의 의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사역하는 영혼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다른 상처받은 영혼이 사역을 위해 부르짖지만 사역하는 영혼은 자신의 원한과 고통에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때 자신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여러번 가르쳐줬어. 머지않아 악이 선한 기독교인의 영혼을 장악했고 나는 강제로 나의 보호를 제거하고 그 기독교인이 가한 피해에 따라 악마들이 그 기독교인을 체질 하라고 허용해. 그리고 나중에 만약 그 기독교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가온다면 나는 그 기독교인을 회복시킬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자주 이 신랄한 습관은 삶의 산비탈길에 잘 닳아서 파진 구덩이가 될 수 있어.

이것은 익숙한 풍경에 편안한 길이야.. 계곡에서 그 영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고개를 들고 “나는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미묘한 우월감을 심어줘. 이 자만함의 독은 나를 위해 점점 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 영혼의 삶을 이끌 수 있었던 은혜의 빠른 흐름에서 그 영혼을 제거해.

그렇기 때문에 너와 에스겔이 말이나 컷속말로 다른 사람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을때, 나는 너가 그것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여러달 동안 관찰하였고 너의 승리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너를 위한 사역을 너에게 드러낼 수 있었어. 내 사랑아, 하지만 너는 아직 안전하지 않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로 인한 비난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어. 너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 너희들 두 사람이 함께 반드시 새로운 경계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해.

새로운 단계의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나는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어.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거야.

나는 너가 이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나는 정말 고마워해. 이제 너가 해야할 일은 너의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너가 방어, 심지어 공격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어두운 목소리를 떨쳐버리는 것뿐이야.

(클레어) 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할때 저는 정말 싫어요. 오 주님, 그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저희 둘다 거룩함 안에서 굳건하게하여 저희가 비방을 통해 영혼을 상하지 않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약간의 적개심이라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주실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반응해야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기도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천사들조차 그들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달콤한 안식처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반응으로 그들을 자주 불쾌하게 하였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의 신부야, 이것이 오늘밤 너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바랬던 것들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였던 응답이야.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야. 이제 너의 배우자가 이에 동의할때 나의 기쁨이 가득찰거야.

나의 신부들아, 제발 아무도 너희들을 비난, 중상, 비판의 구덩이로 끌어내리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너희들을 실패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사탄의 주요 무기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서 내 손을 아주 조금 뒤로 빼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체질하게 허용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많아. 정말 많은 기쁨,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어. 천국에서는 이 혐오스러운 피조물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더이상 없을 거야. 천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너희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이 지구에서 너희들 자신을 극복해야해. 여기는 시험장이야.

정말로 너희들은 그 영들이 나에게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시험하고 또 시험해야해. 너희들은 반드시 거짓 그리고 왜곡되어진 진리, 거짓 교리를 항상 경계해야해. 이것이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의 엄숙한 책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옹호하고 거짓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할 의무를 줘.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유익을 얻고 형제사랑의 결속력이 더 강해져.

하지만 그 그릇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것은 엄격히 나의 영역이야.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그들의 동기를 나에게 말기는 것이 가장 좋아.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클레어가 자신을 변호한다고 비난했고,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은 클레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른 채널에서 하는 것처럼 이 채널에서도 분별력을 적용하는 것은 옳고 좋은 일이야. 하지만 조금의 원한도 없이 기독교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나는 오직 한가지 이유때문에 이 가르침을 가져왔어. 나의 몸에 오는 부정적인 맹공격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빠져들고 있는 함정을 알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은혜와 나와 연결감을 잃어버릴 거야. 나는 이 채널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나의 신부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어. 너희들 모두는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가져다주는지 전혀 알지 못해.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을 적들의 표적으로 만들어. 그러니 너희들을 판단에 빠지게 하는 적들의 새롭고 독특한 불꽃을 조심해라.

이 채널에 처음 들어온 너희들에게, 나는 이 가르침에서 성경구절을 15번 사용했어. 너희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아라.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머물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응답하는 선물로 너희들을 축복해.